

멈추지 않는 전·월세 상승세... 강서 마곡 두달새 2억 ↑

전국 전세품귀 속 마곡 물량 속속 마곡엠밸리 9단지 내년 입주 앞두고 전용면적 84㎡ 2단지 전세가 8억 7월 5.8억... 3개월만에 2.2억 ↑
“실거주 집주인, 최근에 이주 결정 내년 초 시세이하 거래 가능할 것”



서울 전역이 전세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 전세호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신축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서구 마곡일대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

22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전역이 전세품귀 현상을 겪고 있지만 강서구 마곡동은 ‘마곡엠밸리’ 아파트 단지 위주로 전·월세 물량이 제법 나왔다. 이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지난 2014년~2016년 준공됐다. 9단지의 경우 오는 2021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세는 호가가 평균적으로 1억5000만~2억원 가량 오른 모습이다. 등록된 전세 물건을 살펴보면 마곡엠밸리2단지(전용면적 84㎡)가 8억원에 물건이 있다. 이 면적형은 지난 7월 5억8000만원, 8월 6억5000만원에 계약되며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6단지(전용면적 114.91㎡)는 9억원에 물건이 나왔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면적형은 임대차법 시행 이전에 7억8000만원에 계약됐다”며 “호가 11억원을 제시하는 집주인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5억8000만원에 계약된 8단지(전용면적 84.88㎡)는 7억5000만원에 물건이 나왔다.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전용면적 84.98㎡)는 8억원에 물건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8월 5억5000만원, 9월 6억원에 계약됐다.

월세가격도 상승세다. 전세난으로 월세 계약 비율이 증가하면서 시세가 계약에 반영되고 있다. 마곡엠밸리4단지(전용면적 84.56㎡)가 보증금 5억원,

월세 100만원에 물건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 5월 보증금 3억 월세 9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5단지 전용면적 114.91㎡는 보증금 7억원, 월세 120만원에 물건이 나왔다. 이 면적형의 경우 지난 6월 보증금 4억원 월세 65만원에 계약됐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마곡엠밸리의 경우 집주인들이 실거주하다가 최근 이주를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전·월세 물량이 제법 있는 편이다”라며 “9단지는 오는 2021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KB부동산 리브온이 지난 1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시황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은 비강남권지역 위주로 올랐다. 그중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낸 곳은 강서구로 전 주 대비 0.81% 올랐다. 그 뒤는 성북구(0.80%), 은평구(0.71%), 성동구(0.66%), 노원구(0.58%)였다.

반면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완화되고

있다. 지난 달 21일 0.28%의 상승폭을 나타낸 서울 매매가격은 이달 5일 0.24%, 12일 0.22%를 나타내며 누그러지고 있다. 성북구(0.30%), 성동구(0.29%), 마포구(0.29%), 영등포구(0.27%), 강남구(0.27%)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상승을 보일 뿐이었다.

전체 거래량 대비 매매거래 비율도 월별로 줄고 있다. 6월 이후 3개월 연속 전체 아파트 거래량 중 매매비율이 하락 중이다. 한 때 패닉바이(공황구매)을 나타냈던 서울 아파트 거래비율은 8월 55.56%(10만6969건 중 5만9429건)로 나타났다. 이는 64.72%(15만8348건 중 10만 2482건)의 매매거래량 비율을 기록한 6월 보다 9.16% 낮아진 수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셋값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며 “마곡지역은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가 밀집된 곳이며 지하철역 근처 오피스텔이 많아 향후 전·월세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김용덕 손보협회장 “연임 뜻 없어”

차기협회장 구도 ‘안갯속’

연임이 유력했던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사진)이 2차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를 앞두고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연임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회추위 위원들에게 문자로 전달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다음달 5일 만료된다.

김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손보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 선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해석했다. 손해율이 상승하는 등 보험업계의 수익성 악화 속에서 손 회장은 당국과 업계 간 소통 역할을 수행하며 현안 해결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협회 내부적으로도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며 직원들과 신뢰를 쌓았다.

가장 유력한 인사로 하마평에 올랐던 김 회장이 이탈하면서 차기 협회장 구도도 안갯속이다. 그간 차기 회장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강영구 메리츠화재윤리경영실장과 유관우 김앤장 고문 등



이 거론돼 왔다. 강 실장과 유 고문은 모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으로 보험을 담당했던 경력이 있다. 강 실장은 제9대 보험개발

원장을 지낸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론에 거론되는 사람이 아닌 제3의 거물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오는 27일 회추위때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회추위는 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코리안리 등 손보협회에 최고경영자(CEO) 6명과 장동한 보험학회장, 성주호 리스크관리 학회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김정남 DB손보 부회장이 선임됐다.

회추위는 오는 27일 2차 회추위를 열고 후보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후보군이 결정되면 이후 회원사 투표를 거쳐 차기 협회장이 최종 결정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

JY “위기속 기회 찾아... 미래로 나아가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베트남 출장 총리와 면담... R&D센터 중요성 강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베트남 현지 사업을 둘러보며 미래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19일부터 22일까지 베트남 출장을 진행했다. 한중희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과 노태문 무선사업부장, 이재승 생활가전사업부장과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 함께 했다.

이 부회장이 베트남을 찾은 것은 2018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올 초 베트남 R&D 센터 준공식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취소된 바 있다. 앞서 2012년에는 이근희 회장과 박근 공장을 함께 방문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우선 20일 하노이에 건설 중인 베트남 R&D센터 공사를 현장에 살피었다. 응우옌 쉰억 폭 베트남 총리와 면담을 통해 R&D 센터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베트남 R&D 센터는 지난 3월 건설을 시작해 2022년 말 완공을 계획 중인 시설이다. 동남아 최대 규모인 연면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베트남 현지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

8만㎡에 지상 16층 지하 3층으로 조성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인력 3000여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이어서 21일까지는 하노이 인근 박닌과 타이엔응에 있는 삼성 복합단지를 찾았다.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생산공장을 점검하며 사업 현황도 보고받았다. 22일에는 호치민으로 자리를 옮겨 TV 및 생활가전 생산 공장을 살펴보고 중장기 사업 전략도 논의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큰 변화가 닥치더라도 기민

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자”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야 한다. 뒤처지는 이웃이 없도록 주위를 살피자. 조금만 힘을 더 내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삼성은 베트남에서도 ▲주요 대학과의 산학협력 ▲기능올림픽 국가대표의 훈련 지원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실시 ▲제조전문 컨설턴트 및 금형전문가 양성 ▲방과후 학교인 삼성희망학교 운영 등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CSR 활동을 진행 중이다.

/김재용 기자 juk@

다중대표소송제, 불필요 소송 남발 원인

>> 1면 ‘뉴메트로 5주년’서 계속

재계는 이 제도가 불필요한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이야기한다. 경제개혁연구소에 의하면 지난 1997~2017년 법원에 제기된 주주대표소송 가운데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21년간 총 137건으로, 1년에 6.5건 꼴이다.

김경필 고려대 사회학과 강사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의 경제민주화 계획, 실천, 과제” 논문에서 “임기 전반기 동

안 문제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대안은 잘 제도화되지 못했다”면서 “총수 일가를 견제하는 안은 대부분 법제화에 실패했고 불공정거래나 경제력 집중 억제 안은 부분적으로만 시행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약이 제도로 전환되지 못한 이유는 당·청의 전략 미비와 자본과 야당의 반발, 정책 거버넌스의 문제, 특히 대화기구가 공약 후퇴의 정당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정 기자 hjk10@

카드업계, 저신용자 카드론 금리 상향

8월 총 이용액 3.9조 전년비 11.7% ↑

카드론 이용액이 전년보다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 가운데 카드사들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주로 이용하는 저신용자의 금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폭증에 의한 부실 우려가 제기되면서 선제적으로 속도조절에 나섰다라는 분석이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카드 전업사 신한·삼성·KB국민·현대·

우리·롯데·하나카드 7개사 카드론 이용액은 3조90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신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신용대출 증가에 대해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 같은 우려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라는 분석이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7개사 카드 전업사 표준등급 구간별 카드론 금리 평균 운영

가격(기준금리에 조정금리를 반영한 최종금리)은 12.76%~14.42%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카드론 금리를 낮추면서 전월 카드론 운영가격보다 금리를 많게는 0.27%포인트 가량 낮췄다.

신용등급별로 살펴보면 신용등급이 높으면 금리를 낮추고,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금리를 높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금리의 경우 카드론 총량이 증가하면서, 위험관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요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영석 기자 ysl@